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은*

¹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ather's parenting stress

Kyoung-Eun, Kim*

¹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1609명의 아버지들이다. 본 연구를 위해 아버지의 수입, 우울, 부부관계, 자기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을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소득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우울, 부부갈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 중 사회성, 활동성과는 부적 상관이 정서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검증결과,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odel to explain the factors influencing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The participants included 1609 fathers with a 5-year old. The study used 2012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and analyzed with SPSS and AMOS program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father's income and parental efficacy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and father'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Second, father's parenting stress was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ed by parental efficacy and their child's tempera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ther education are needed for promoting positive paternal mental health and parental efficacy, to reduce parenting stress of fathers.

Keywords : parenting stress, income, depression, marriage conflict, parental efficacy, tempera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유아 발달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이 어머니의 주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직장일과 가사 그리고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엄마를 일컫는 '슈퍼 맘'처럼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인 '슈퍼 대디'가 등장하고 있고, Friend와 Daddy를 합성한 '친구 같은 아빠' 즉 '프렌디(friendly)'라는 말도 쉽게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This research was supported financially by Namseoul University in 2015.

*Corresponding Author : Kyoung-Eun Kim(Namseoul Univ.)

Tel: +82-41-580-2320 email: leejay48@chol.net

Received June 19, 2015

Revised July 8,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긍정적인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1].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1,2,3]은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선택이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됨에 대한 준비 없이 자녀의 출산으로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부모가 됨으로 인해 가장, 경제적 담당자, 자녀양육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역할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특히 자녀양육에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들의 경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아버지들의 양육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졌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가정에서 생산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균형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다루었다면, 최근 들어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 참여도 및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5]. Abidin[6]의 양육스트레스 모형에 따르면, 부모변인(부모의 우울, 애착 등), 유아변인(유아의 활동성, 적응성 등), 상황변인(사회적지지, 부부관계 등)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은 양육스트레스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Abidin의 모형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 유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버지의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7],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한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은 부부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경우 부부간의 갈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더불어 아버지의 우울은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10]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및 참여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관계적 요인으로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반면, 아버지가 배우자와 친밀하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자녀 양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즉, 부부 간의 긍정적 감정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녀 양육에 보다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한편 아버지의 효능감이란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아버지 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17]. 또한 유아의 발달과 성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아 및 유아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포함한다[18].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신감인 양육효능감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처럼 아버지의 효능감은 자녀 양육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유아의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질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특히 기질 요소 중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유아의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개인적 요인인 소득, 우울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적 요인인 부부관계, 효능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적 요인인 부부관계, 양육효능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정해보면 그림 1과 같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및 관계적 요인, 유아 요인 등간의 직간접적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양육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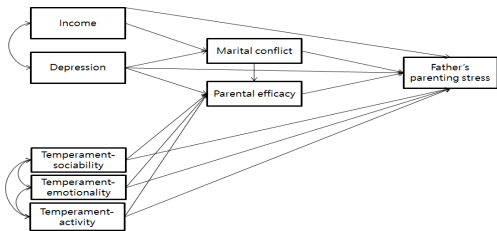


Fig. 1. hypothesized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횡단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5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3차년도까지 어머니에게만 실시 하였던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의 항목이 아버지 대상 질문지에 추가됨에 따라 아버지들의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5차년도의 경우 유아만 5세에 접어들어 따라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보다 높아지는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자료 중 관찰 변인들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1609명의 아버지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7.26(SD=3.97)세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10명(.6%), 고졸 이하 430명(26.7%), 전문대졸 이하 308명(19.1%), 대졸 이하 17명 (10.6%), 대학원졸 이상 171(10.6%)명으로 나타났다

2.3 측정도구

2.3.1 아버지의 소득

아버지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을 활용하였다.

2.3.2 아버지의 우울

아버지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인 우울은 Kessler K6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안 느낌=1, 항상 느낌=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안전부절 못하셨습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이다. 아버지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다.

2.3.3 아버지의 부부관계

아버지의 부부관계는 부부갈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KMSS[22]의 4개 문항을 활용하며, Likert 5점 척도(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5)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다.

2.3.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효능감 척도(PSES)를 활용하였다. 총 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개인으로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아버지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다.

2.3.5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EAS 기질척도(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성(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 활동성(아동이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 사회성(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 등의 세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다.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 기질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다.

2.3.6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23]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로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은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치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개인적 특성(소득, 우울), 관계적 특성(부부관계, 효능감),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 변인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값, 적합도 지수(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아버지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유아의 특성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리커트 점수에서 아버지의 효능감은 3.88(SD=.68),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2.39(SD=.59), 부부갈등은 2.09(SD=.72), 우울 평균은 1.86(SD=.67)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 수입은 442.3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Table 1. Means and SDs of main variables

		M	SD
father	parenting stress	2.39	.59
	income	442.33	345.61
	depression	1.86	.67
	marital conflict	2.09	.72
	parenting efficacy	3.88	.68
temperament	sociability	3.54	.53
	emotionality	2.79	.63
	activity	3.75	.59

아버지의 개인 특성(소득, 우울), 관계적 특성(부부관계, 효능감),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효능감($r=-.53, p<.001$), 소득($r=-.08, p<.05$)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우울($r=.46, p<.001$), 부부갈등($r=.44, p<.001$)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효능감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아버지가 우울하고,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기질 중 사회성($r=-.11, p<.001$), 활동성($r=-.05, p<.001$)과는 부적 상관이 있고, 정서성($r=.17, p<.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사회성, 활동성의 기질을 많이 보일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고, 부정적인 정서성의 기질을 많이 보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은 아버지의 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고($r=.08, p<.01$), 유아 기질 중 정서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 p<.05$). 즉,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고, 자녀가 부정적 정서 기

질을 가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우울은 부부갈등($r=.42, p<.001$),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r=.14, p<.001$)과 정적 상관관이 있고, 효능감($r=-.59, p<.001$),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r=-.10, p<.01$), 활동성($r=-.06, p<.05$)과는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우울할수록 부부갈등은 높고, 자녀는 부정적 정서 기질을 많이 나타낸다. 반면, 아버지가 우울할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낮고 자녀는 기질 중 사회성과 활동성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효능감($r=-.49, p<.001$) 및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r=-.07, p<.001$)과 부적 상관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과는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r=.14, p<.001$). 즉, 아버지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낮고, 자녀는 부정적 정서 기질을 많이 나타낸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in variables

	2	3	4	5	6	7	8
1	-.08**	.46***	.44***	-.53***	-.11**	.17***	-.05*
2	1	-.04	-.01	.08**	.02	-.05*	.00
3		1	.42***	-.59***	-.10**	.14***	-.06*
4			1	-.49***	-.07**	.14***	-.04
5				1	.12***	-.14***	.09***
6					1	-.26***	.56***
7						1	-.04
8							1

* $p<.05$, ** $p<.01$, *** $p<.001$

1: parenting stress 2: income, 3: depression, 4: marriage conflict, 5: parental efficacy, 6: temperament-sociability, 7: temperament-emotionality, 8: temperament-activity

3.2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아버지의 개인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 유아의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모형(Fig 2)을 추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아버지의 개인적 변인 및 유아의 기질이 아버지의 관계적 변인을 매개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Fig 1)을 추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버지의 우울과 유아의 기질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대안모형을 추정하였다(Fig 3 참조). χ^2 검증을 이용해 연구모형과 직접효과모형, 대안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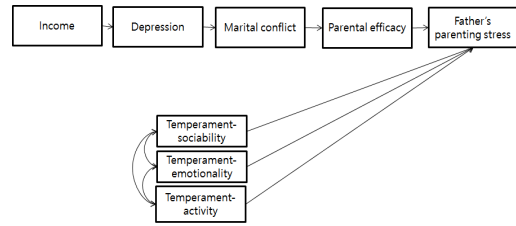


Fig. 2. direct pat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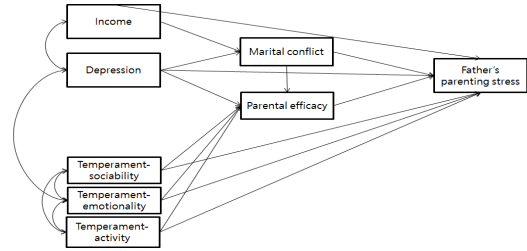


Fig. 3. revised model

먼저, 연구모형(Fig. 1)은 아버지의 개인 특성인 소득과 우울, 유아의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갈등과 효능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 효과 모형(Fig. 2)은 개인 특성인 소득, 우울, 부부갈등, 효능감, 유아 기질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만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개인 특성 및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행하게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한 모형이다. 또 다른 대안 모형(Fig. 3)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에서 아버지의 우울과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 간의 경로를 추가적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Table 3에는 χ^2 검증을 이용해 연구모형과 직접효과모형, 대안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직접효과모형은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볼 때 매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은 직접효과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chi^2 = 50.32, p < .001, TLI = .93, CFI = .98, RMSEA = .04$). 마지막으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 수정모형은 연구모형보다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χ^2 차이검증을 통한 적합도 비교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각각 $\Delta\chi^2 = 21.63, \Delta df = 1, p < .001$).

Table 3. Model fitness index for hypothesized model and alternative models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
Direct path model	835.05	18	<.001	.23	.61	.15	784.73
Hypothesized model	50.32	10	<.001	.98	.93	.04	-
Revised model	28.69	9	<.01	.99	.96	.03	21.63***

*** p < .001.

또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값이 .96, CFI 값이 .99로 나타났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이 .03로 나타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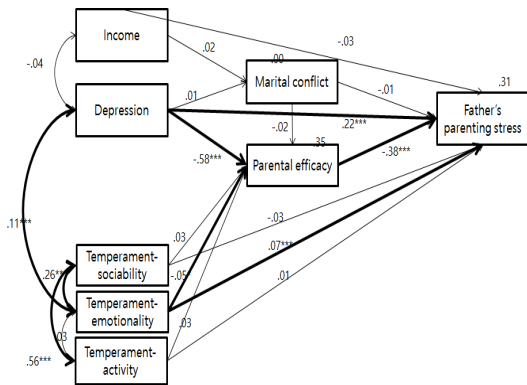


Fig. 4. Final study model

*p < .05. **p < .01. ***p < .001.

Fig. 4와 Table 4에는 최종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의 개인 특성,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변량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의 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우울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게 된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은 유아의 정서성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의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기질은 그 자체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 기질은 아버지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게 된다.

최종모형에서 아버지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이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Z=13.32, p<.001),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은 아버지의 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2.45, p<.05).

Table 4. Regression weights of final study model

		Unstandardized Est.	Standardized Est.	S.E.	C.R.
depression	→ marriage conflict	.01	.01	.03	.35
income	→ marriage conflict	.00	.03	.00	.98
sociability	→ parental efficacy	.04	.03	.03	1.25
emotionality	→ parental efficacy	-.05	-.05*	.02	-2.50
activity	→ parental efficacy	.03	.03	.03	1.39
marriage conflict	→ parental efficacy	-.02	-.02	.02	-1.12
depression	→ parental efficacy	-.58	-.58***	.02	-28.74
income	→ parenting stress	.00	-.04	.00	-1.67
marriage conflict	→ parenting stress	-.00	-.01	.02	-.35
parental efficacy	→ parenting stress	-.32	-.38***	.02	-14.66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19	.22***	.02	8.66
sociability	→ parenting stress	-.03	-.03	.03	-1.07
emotionality	→ parenting stress	.06	.07***	.02	3.33
activity	→ parenting stress	.01	.02	.02	.58

* p<.05.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 특성(소득, 우울), 관계적 특성(부부갈등, 효능감), 유아의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 특성 및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자녀가 부정적 정서 기질을 가질 확률은 낮으며 자녀 양육스트레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소득과 양육스트레스[7, 24,25], 가족의 소득과 양육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25,26]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낮추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아버지가 우울할수록 부부갈등은 높고, 자녀는 부정적 정서 기질을 많이 나타내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다. 반면, 아버지가 우울할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낮고 자녀는 기질 중 사회성과 활동성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이 부부관계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2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버지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낮고, 자녀는 부정적 정서 기질을 많이 나타내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자녀양육 및 자녀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8]들과 일치한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긍정적 양육에 있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아버지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예를 들면, 의사소통 방법, 친밀감 증진 상호작용 등)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 간에 양육에 대한 신념, 양육태도, 양육에 대한 기술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나 전문성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참여가 높아지면서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아지고 정보 습득도 높아짐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부 간의 양육 일치도는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인인 만큼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치된 양육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다. 선행연구에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련성 [29]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들에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1, 30],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의 긍정적 참여 사례들이 대중매체나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또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힘든 일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와 자신감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 특성 및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이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은 아버지의 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우울, 효능감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버지의 우울 수준 및 자신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과거에는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를 어머니로 여겼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 공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 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 방해가 되는 양육스트레스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아버지의 우울 및 양육효능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은 개인의 정서조절이나 통제에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31] 자녀 및 부부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울한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고 지지적이지 않으며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게 간섭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1,32], 이러한 우울한 부모들의 자녀관계 특성이 결국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양육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중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효능감이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효능감 증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참여해 본 경험 유무 혹은 참여 정도의 폭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서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고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비해 자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할지에 대한 실천적 지식은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장점을 살린 양육법(예를 들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 공간구성 놀이 등)을 소개해주고 습득하게끔 지원해줌으로써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기질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 기질은 아버지의 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선행연구[21, 28, 33, 34]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이 아버지들의 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참여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21]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기질과 양육참여 간에 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보니 자녀가 순한 기질일 경우 아버지의 큰 노력 없이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일 경우 자녀를 대함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기질에 맞는 적절한 양육방법이나 놀이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직접 실습해보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결정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결정요인으로 아버지가 지각하는 개인적, 관계적 요인들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직장 변인(직무 환경, 직무스트레스, 가정친화적 기업 유무, 직장시간의 융통성 등)들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패널연구자료를 활용하다보니 연구변인들에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결정 요인으로서 아버지 변인 뿐 아니라 어머니 변인(어머니의 성격 특성, 우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등)들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발달에 있어 특히 유아기는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시기이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느냐에 따라 유아의 발달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요인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가정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게 되고, 결국 이것은 건강한 유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Childrearing guidebook for fathers. 2013
- [2] E. Flouri, A. Buchanan,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2). pp.141-153. 2004.
DOI: <http://dx.doi.org/10.1348/000709904773839806>
- [3] J. Shears, J. Robinson, Fathe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Child Care in Practice*, 11(1). pp. 63-79. 2005.
DOI: <http://dx.doi.org/10.1080/1357527042000332808>
- [4] G. Riedmann, Preparation for Parenthood. The Global Library of Women's Medicine. 2008. DOI: 10.3843/GLOWM.10110
DOI: <http://dx.doi.org/10.3843/GLOWM.10110>
- [5] K. Ponnet, D. Mortelmans, E. Wouters, K. V. Leeuwen, K. Bastaitis, I. Pasteels,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pp. 259 - 276. 2013.
DOI: <http://dx.doi.org/10.1111/j.1475-6811.2012.01404.x>
- [6] R. R. Abidin, The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5.
- [7] S. Coltrane, R. D. Parke, M. Adams, Complexity of Father Involvement in Low-Income Mexican American Families, *Family Relations*, 53(2). pp. 179 - 189. 2004.
- [8] S. Wilson, C. E. Durbin,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pp. 167-180. 2010.
DOI: <http://dx.doi.org/10.1016/j.cpr.2009.10.007>
- [9] K. J. Kaczynski, K. M. Lindahl, N. M. Malik, J. P. Laurenceau,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test of medi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 199-208. 2006.
DOI: <http://dx.doi.org/10.1037/0893-3200.20.2.19>
- [10] N. L. McElwain, B. L. Volling, Depressed mood and marital conflict: Relations to maternal and paternal intrusiveness with one-year-old infa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pp. 63-83. 1999.
DOI: [http://dx.doi.org/10.1016/S0193-3973\(99\)80004-5](http://dx.doi.org/10.1016/S0193-3973(99)80004-5)
- [11] P. Kane, J. Garber,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in fathers, children's psychopathology, and father-child conflict: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3). pp. 339-360. 2004.
DOI: <http://dx.doi.org/10.1016/j.cpr.2004.03.004>
- [12] K. M. Benzies, M. J. Harrison, E. J. Magill, Parenting stress, marital quality,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age 7 years. *Public Health Nursing*, 21(2). pp. 111-121. 2004.
DOI: <http://dx.doi.org/10.1111/j.0737-1209.2004.021204.x>
- [13] Y. Lavee, S. Sharlin, R. Katz,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pp. 114-135. 1996.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96017001007>
- [14] S. Y. Kwok, C. C. Ling, C. L. Leung, J. C. Li, Fathering self-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 involvement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8). pp. 1051-1060. 2013
DOI: <http://dx.doi.org/10.1007/s10826-012-9666-1>
- [15] P. Kooreman, A. Kapteyn,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2). pp. 223-249. 1987
DOI: <http://dx.doi.org/10.1086/261453>
- [16] L. Strohschein, A. Gauthier, R. Campbell, C. Kleparchuk, Parenting as a dynamic process: A test of the resource dilutio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pp. 670-683. 2008.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8.00513.x>
- [17] S. Dorsey, K. Klein, R. Foreh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pp. 295 - 305. 1999.
DOI: <http://dx.doi.org/10.2307/353749>
- [18] M. Ardel, J. S. Eccles,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 pp. 944 - 972. 2001.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01022008001>
- [19] P. R. Sevigny, L. Loutzenhiser,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 pp. 179-189.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365-2214.2009.00980.x>
- [20] G. Paterson, A. Sanson, The Association of Behaviou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5-Year-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3), 293-309. 1999.
DOI: <http://dx.doi.org/10.1111/1467-9507.00097>
- [21] B. A. McBride, S. J. Schoppe,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pp. 998-1101. 2002.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2.00998.x>
- [22] H. Markman, S. Stanley, S. Blumberg,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94.

- [23] K. H. Kim, H. K. Kang,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pp. 141-150. 1997
- [24] E. T. Gershoff, J. L., Aber, C. C., Raver, M. C. Lennon,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pp. 70-95.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467-8624.2007.00986.x>
- [25] C. S. Lee, J. R. Anderson, J. L Horowitz, G. J. August, Family income and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58, 417-430.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29.2009.00563.x>
- [26] G. Guo, K. M. Harris,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pp. 431-447. 2000.
DOI: <http://dx.doi.org/10.1353/dem.2000.0005>
- [27] C. M. Lovejoy, P. A. Graczyka, E. O'Harea, G. Neuma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pp. 561-592. 2000.
DOI: [http://dx.doi.org/10.1016/S0272-7358\(98\)00100-7](http://dx.doi.org/10.1016/S0272-7358(98)00100-7)
- [28] J. Belsky.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pp. 83-96. 1984.
DOI: <http://dx.doi.org/10.2307/1129836>
- [29] H. A. Raikes, R. A. Thompson,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pp. 177 - 190, 2005.
DOI: <http://dx.doi.org/10.1002/imhj.20044>
- [30] E. H. Pleck, J. H. Pleck, Fatherhood ideals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dimension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rd ed., pp. 33 - 48). New York: Wiley. 1997.
- [31] T. Field, B. Healy, S. Goldstein, M. Guthertz.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 7-14.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6.1.7>
- [32] E. M. Cummings, P. T. Davies,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pp. 73-112. 1994.
DOI: <http://dx.doi.org/10.1111/j.1469-7610.1994.tb01133.x>
- [33] L. Clark, G. Kochanska, R. Ready,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pp. 274-285.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9.2.274>

- [34] D. M. Gelfand, D. M. Teti, C. E. Radin Fox, Sources of parenting Stress for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iatry. 21, pp. 262-272. 1992.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2103_8

김 경 은(Kyoung-Eu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인간발달, 창의성